

제 1장 연주 현씨의 시작과 관향(貫鄉) 연주(延州)

연주 현씨의 역사는 고려시대 조위총의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운 현담운 장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1. 연주 현씨 시조 현담운 장군의 유래

조선 문종 때, 김종서 등 18인이 고려시대 전반을 편년체로 정리해서 쓴 역사서 <고려사절요>와 조선 세종 때, 정인지 등이 간행한 역사서 <치평요람(治平要覽)> 등에는 현담운 장군과 아들 덕수, 이후의 활약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절요 제12권 / 명종 광효대왕(明宗光孝大王) 4년
1174년(갑오년), 송(宋) 순희(淳熙) 원년, 금(金)대정 14년

○西京留守，兵部尙書趙位寵，起兵，謀討鄭仲夫，李義方，檄召東北兩界諸城曰，側聞上京

重房，議曰，近北界諸城，率多桀驁，宜往攻討，兵已大發，其可安坐自就誅戮，宜各糾合兵馬，速赴西京，於是岳嶺以北四十餘城，皆應之，獨延州都領玄覃胤，及子德秀，謂州軍將曰，昔，契丹蕭遜寧，侵我，列城，竝降，而獨我州，屹然固守，功載王府，今位寵，包藏禍心，旅拒王命，天地所不容，苟懷忠義，可忍從命，遂與州將，向闕羅拜，連呼萬歲，乃閉城固守。

○ 서경유수병부상서(西京留守兵部尙書) 조위총(趙位寵)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이의방을 토벌하기를 꾀하고, 동북 양계(東北兩界)의 여러 성(城)에 격문을 보내어 소집하기를, “소문을 들으니 서울서는 중방(重房)에서 결의하기를, '근래 북계(北界)의 여러 성에는 대체로 거세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마땅히 가서 토벌해야 한다' 하고, 군사를 이미 크게 동원하였으니, 어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스스로 주륙을 당하겠는가. 마땅히 각각 병마를 규합하여 속히 서경(西京)으로 나오라.” 하였다. 이에 절령(岳嶺 자비령(慈悲嶺)) 이북의 40여 성이 다 호응했으나, 유독 연주(延州) 도령(都嶺) 현담운(玄覃胤)과 그 아들 덕수(德秀)는 주군(州軍)의 장수에게 말하기를, “옛날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였을 때, 모든 성들이 다 항복하였으나 유독 우리 연주만은 의젓이 굳게 지켜서 공적이 왕부(王府)에 기록되었다. 지금 위총이 화난(禍難)의 마음을 속에 숨겨 가지고 군사로 왕명을 거역하니,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진실로 충의를 지녔다면 어찌 차마 그 명령에 좇겠는가.” 하고, 드디어 주의 장수와 더불어 궁궐을 향하여 늘어서서 절하고 잇달아 만세를 부르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174년 (고려 명종 4년)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다. 조위총은 서북에 있는 무신들이 역사적으로 무시받던 불만을 명분 삼아 자신과 서북지방의 세력을 펴기 위해 난을 일으켰다.

서경(西京: 지금의 평양)에서 조위총(趙位寵)이 난을 일으키자 절령(岫嶺:慈悲嶺) 이북 40여 성(城)이 다 응했으나, 연주도령(延州都領)(도령 : 고려시대 전투 부대의 최고지휘관) 현담윤만은 응하지 않고 버티며 세 아들과 함께 굳게 연주성(延州城)을 다음과 같이 지켰다.

고려사절요 제12권 / 명종 광효대왕 (明宗 光孝大王) 4년 1174(갑오년), 송(宋) 순희(淳熙) 원년, 금(金) 대정(大定) 14년
○冬十月，位寵，遣人，牒延州曰，今，北界四十餘城軍馬，已會于此，獨爾城不至，將舉銳兵問罪，慎勿聽二三人語，宜秣馬興師，速赴西都，是日，<u>城中，推德秀，權行兵馬臺事</u>，德秀，遣州將彥通等三十餘人，擒西使殺之，位寵，又牒云，今，發兵者，將以救北藩列城也，列城兵，已至清川江，獨爾城不至，將發兵，往攻滅之，於是州人，頗洶洶，或有欲應位寵者，德秀，詐爲孟州將吏書，密令城外村民，投城中曰，上京兵十領，已踰鐵嶺，自東界，將擣西都，凡州鎮，爲位寵誑誤者，不可輕發兵，其各堅守以待之，城中人，信之無二心，德秀，與州副使崔博文，判官安之彥，金公裕等，分兵屯守諸門。 ○兵馬使車仲圭，趣延州，至雲畔驛，雲州人，殺之，分臺監察御史林擢才，錄事李唐就等，至延州，語曰，兵馬使，旣死，吾等，無所歸，懷印而來，求活於貴州，於是，州人，<u>以宣旨別監將軍玄利厚，權行兵馬使事，利厚，德秀弟也，以德秀，權監倉使事，以唐就，依前兵馬</u>
○ 겨울 10월에 위총이 연주에 사람을 보내어 통첩하기를, “지금 북계의 40여 성의 군사들이 이미 여기에 모였다. 유독 너의 성에서만 오지 아니하므로, 장차 정예한 군사를 보내어 죄를 묻고자 한다. 부디 2, 3명의 말을 듣지 말고, 마땅히 말에게 죽을 먹이고 군사를 일으켜 속히 서도(西都 서경(西京))로 나오라.” 하였다. 이날 <u>성중에서는 덕수(德秀)를 권행병마대사(權行兵馬臺事)로 추대하였다.</u> 덕수가 주장(州將) 언통(彦通) 등 30여 명을 보내어 서경에서 온 사자를 사로잡아 죽였다. 위총이 또 통첩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군사를 일으킨 것은 장차 북쪽 변경의 여러 성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여러 성의 군사들이 이미 청천강(淸川江)에 도착하였는데 유독 너의 성만 오지 않으니, 장차 군사를 동원하여 쳐서 멸망시키겠다.”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의 인심이 자못 흥흥하여 혹 위총에게 호응하려는 자가 있었다. 덕수가 맹주(孟州 평남 맹산(孟山)) 장리(將吏)의 편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비밀히 성 밖의 촌백성으로 하여금 성중에 던지게 하였는데, 말하기를, “서울[上京]의 군사 10령(領)이 이미 철령(鐵嶺)을 넘어 동계(東界)로부터 장차 서도(西都)를 치게 되었으니, 무릇 주진(州鎭) 가운데 위총에게 잘못 속은 자는 경솔하게 발병(發兵)하여서는 안 된다. 각기 굳게 지키면서 기다리라.” 하니, 성중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탄 마음이 없었다. 덕수가 주(州)의 부사(副使) 최박문(崔博文), 판관(判官) 안지연(安之彦)·김공유(金公裕) 등과 더불어 군사를 나누어서 모든 성문을 진치고서 지켰다. ○ 병마사(兵馬使) 차중규(車仲圭)가 연주(延州)로 가느라고 운반역(雲畔驛)에 이르니, 운주(雲州 평북 운산)의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분대감찰어사(分臺監察御史) 임탁재(林擢才)와 녹사(錄事) 이당취(李唐就) 등이 연주(延州 평북 영변(寧邊))에 이르러 말하기를, “병마사가

이미 죽었으니 우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인(印)을 품고 와서 귀주(貴州)에 살 길을 찾습니다."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선지별감장군(宣旨別監將軍) 현이후(玄利厚)로 임시 병마사의 일을 행사하게 하니, 이후는 덕수의 아우이다. 덕수로 임시로 감창사(監倉使)의 일을 맡게 하고, 당취로 이전대로 병마녹사(兵馬錄事)를 삼아 모든 부서를 바꾸며 군사를 엄중히 하여 지켰다. 이날 안북도령(安北都領) 강우문(姜遇文) 등 34성의 도령이 연주에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서울[上京]에서 장차 대군을 발하여 북쪽 변경의 여러 성을 치려고 한다. 여러 성은 실로 죄가 없기 때문에 서경의 조상서(趙尙書)가 우리들을 구제하고자 하여 군마를 불러 모았는데, 유독 귀성(貴城)만이 오지 아니하니 그 뜻이 어떠한가. 만약 딴 생각을 가지고 쫓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일족을 전멸시킬 것이니, 군마를 거느리고 서경으로 나와서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위총은 현담윤과 현담윤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반란에 가담할 것을 계속 설득하였다. 급기야 사절을 보내 회유하자 현담윤과 아들은 조위총이 보낸 사절을 잡아 죽였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의 인심은 자못 흥흥하여 조위총에게 호응하려는 자가 있었다. 현담윤과 덕수 부자는 맹주(孟州 평남 맹산(孟山)) 장리(將吏)의 편지를 거짓으로 만들어 비밀리 성 밖의 촌백성으로 하여금 성중에 던지게 하였는데, 말하기를, "서울(上京)의 군사 10령(領)이 이미 철령(鐵嶺)을 넘어 동계(東界)로부터 장차 서도(西都)를 치게 되었으니, 무릇 주진(州鎭) 가운데 위총에게 잘못 속은 자는 경솔하게 발병(發兵)하여서는 안된다. 각기 굳게 지키면서 기다리라." 하니, 성중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탄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게 현담운 장군 부자는 달래어 전의가 생기도록 준비시켜 백성들을 달래는 등 지략과 용맹으로 현담운 장군과 그 세 아들들은 여러 차례 반란군을 진압했다.

이듬해 금(金)나라의 세종(世宗)이 연주성이 고군분투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군을 보내왔으나 이를 사양하며 돌려보냈다. 그 후 여러 성의 군사들이 다시 연주(延州)를 공격했으나 이를 쳐서 패퇴시켰다.

고려사절요 제12권 / 명종 광효대왕 (明宗 光孝大王) 5년

1175년(을미년), 송(宋) 순희(淳熙) 2년 · 금(金) 대정(大定) 15년

○八月，以寧延二州，不附位寵，固守其城，除安北戶長魯文腴，爲閣門祇候，玄德秀父，延州都領覃胤，爲將軍，使居其鄉，德秀，爲內侍祇候，安北都領姜遇文，宋子清，文臣老，職賞有差，使皆居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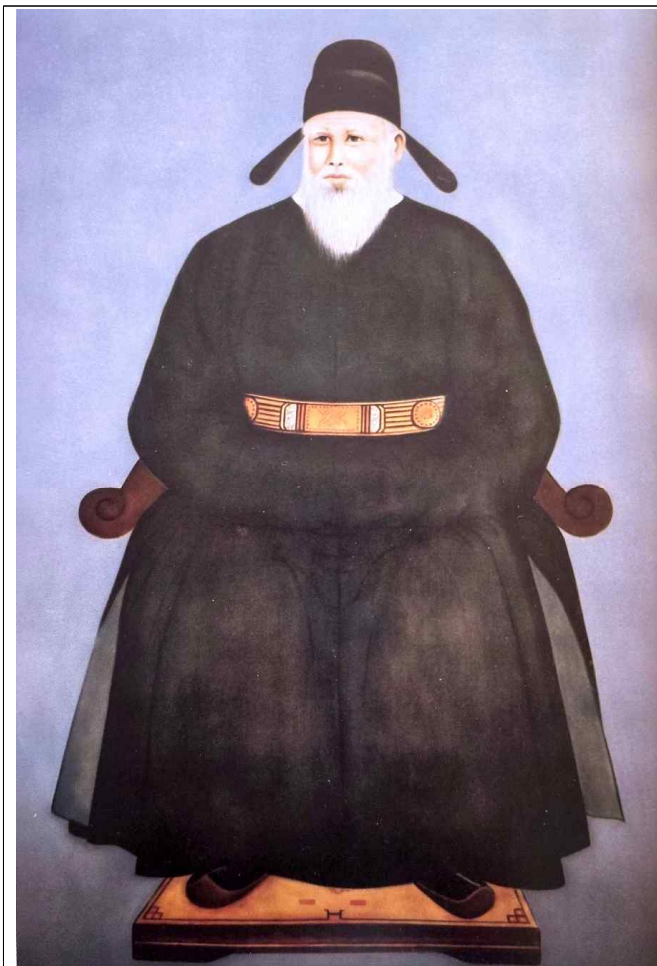
○ 8월에 영주(寧州 평북 의주(義州)) · 연주(延州) 두 고을이 위충에게 붙지 아니하고 굳게 그 성을 지켰다고 하여, 안북호장(安北戶長) 노문유(魯文腴)를 합문지후(閣門祇候)로 삼고, 현덕수의 아버지 연주도령(延州都領) 담운(覃胤)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그 고향에 살게 하였다. 덕수를 내시지후(內侍祇候)로 삼고, 안북도령 강우문(姜遇文) · 송자청(宋子清) · 문신로(文臣老)에게는 벼슬과 상을 차등 있게 주어 모두 서울에 살도록 하였는데, 안북은 처음에는 위충에게 붙었으나 뒤에 배반하였다.

1175년 8월 명종이 현담운(玄覃胤)을 장군(將軍)으로 임명하여 고향에 살게 하였다고 <고려사절요>에 기록하고 있다.

1176년(명종 6) 3년 만에 윤임첨과 두경승 등이 이끄는 관군과의 활약으로 마침내 조위총의 난은 실패하고 만다.

이처럼 현담운 장군은 고려 명종 때, 세 아들과 함께 큰 공을 세움으로써 대장군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벼슬을 지내고 연산군(延

山君)에 봉해졌다. 이를 계기로 후손들은 현담운 장군을 현씨의 시조로 모시고 있다.



시조 현담운 영정 사진

연주성의 전투에서 쾌거를 거둔 현담운 장군과 아들들의 활약상은 2003년 방송된 KBS 대하드라마 ‘무인시대’ 에서도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다.



시랑공사적(侍郎公事蹟)에 의하면,

공(公)은 원래 연주 사람으로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집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8,9세 때부터 몸이 매우 크고 지혜와 용맹이 뛰어났다. 연주 검

각산 깊은 골짜기는 나무숲이 우거져서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공이 어릴 때에 불일이 있어서 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산에서 날이 저물어 캄캄한 밤이 되었다. 이 때에 시커멓게 생긴 귀신이 나타나 횃불을 들고 앞을 인도하면서 말하기를

“玄장군님이 오셨다 하니 가히 이상스러운 징조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으리라”

고 하였다.

이렇게 귀신들도 무서워 할 정도로 담대하였다고 전한다.

우리 시조공(始祖公)께서 방년 십구세(芳年十九歲) 때 중국 거란의 흉노(匈奴)가 국경을 침범하자 공(公)께서는 바로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흉노를 토벌(討伐)하여 평정(平征)하시니 고려 의종(毅宗)께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명신거족(名臣巨族)가문과 성혼하게 하고 연산부사(延山府使)로 제수(除授)하셨다. 그 후 중국 금나라에서 구원을 요청하여 왔을 때에도 현담윤 장군은 고려지원군 대장(高麗支援軍大將)으로 출정(出征)하여 대승(大勝)을 거두고 귀국하셨다.

고려명신록(高麗名臣錄)에 의하면,

北宋(중국)이 여진족의 난리를 만나자 고려에 원병을 청해오니 공을 원병대장으로 임명 출정하였던바 공은 대공을 세웠다. 북송의 국왕이 공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높은 벼슬에 임용되도록 추천하여 주었으며 본국에서도 크게 포상할 것을 논의하였다.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에 의하면,

고려 명종 4년 때 조위총(趙位寵)난리 때 시조(始祖)께서는 아들 형제와 같이 큰 공훈을 세워서 그 원훈(元勳)으로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가 되어 연산군(延山君)에 봉해졌다. 公께서 서거하신 후 경헌(景憲)이란 시호(나라에서 큰 공이 있는 신하에게 죽은 후에 내리는 아호(雅號))를 내렸다.

시조 현담윤 장군의 장례식 일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나 장례 때의 이야기이다.

장례행렬(葬禮行列)이 마을 밖 오리정(五里亭)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와 상여를 멈추고 영령 앞에 간단히 주과를 차려 예를 올렸다. 예식이 끝난 후 상여를 움직이려 하여도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아니했다.

“이 곳에 묻히시고 싶은 뜻이 있으신가”

하고 누가 말한즉, 그 때서야 비로소 상여가 움직였으므로 결국 그 곳에 장사하였다.

연산 관동 임좌 언덕(延山館洞壬坐)에 공의 묘소가 있다.(延山면 용연(龍淵)동 관동참(館洞站), 세칭 복치형(伏雉形)이라 한다.

그 후, 후손들이 벼슬을 따라 남쪽으로 옮겨갔고, 세월이 오래되어 분묘는 허물어졌다. 보통 관서 지방은 그 경계가 중국 요동과 접해 있기 때문에 난리를 자주 겪었으며 세월이 많이 흘러 폐허가 된지 오래 되어서 분묘의 모습이 없어져 평지와 같이 되어 버렸다.

공의 후손들이 분묘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노력해 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1801년(조선 순조원년) 지헌공 현재창(玄在昶, 1733-1809, 첨정공파 18세)이 평안도 개천과 박천에 사는 종원들을 관동(館洞)으로 불러 모아 시조의 분묘가 있다는 장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농기구 가래를 이용하여 분묘 자리를 파내려 갔으나 아직 육탈(肉脫)이 안된 뼈가 나왔고, 인근에 사는 김봉삼이란 자가 급히 달려와 묘주인이 자신의 7대 방조모(旁祖母)라 주장하는 바람에 시조 분묘를 확인하는 작업은 일단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몇 년이 지난 후 현도빈(玄道彬, 첨정공파 16세)공이 묘주인의 후손이라는 김봉삼을 만나 묘에 대한 자초지종을 캐물으니 현장군(將軍)의 묘위에 방조모를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종친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1810년 현재덕(玄在德, 1742-1812, 첨정공파 18세)공을 중심으로 종원들이 모여 분묘를 개장하여 시조의 유골을 발견하였다. 그 후 묘표(墓標)를 세우고 인근 땅을 매입하는 등 묘원을 정비하여 1842년에 관동묘(館洞墓)를 복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종원은 현심(玄鑾, 1765-1849, 첨정공파 19세), 현종갑(玄宗甲, 1769-1836, 의주부윤공파 24세), 현석리(玄錫利, 1777-1851, 첨정공파 19세), 현종억(玄宗億, 1781-?, 의주부윤공파 24세)공 등이다. 이 사실은 3대 대종회장 승종(勝鍾, 전 국무총리)의 고조부 춘암공(春庵公) 현응수(玄應洙, 1792-1872, 첨정공파 20세)가 작성한 시랑공사적(侍郎公事蹟)에 부기(附記)한 심묘사적(尋墓事蹟; 현담운 장군의 묘소 찾기까지의 기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5.附 尋墓事蹟

惟我 鼻祖侍郎公麗之名臣也公以聞世英姿豐功偉節昭載於麗史及關西輿地勝覽本府邑誌赫然照人耳目子孫之至于今蕃衍者莫是先蔭之麻而衣履之藏世久失傳蓋緣西陲地近幽燕荇經兵燹故也子孫之世世痛恨庸有極乎雖因古老所傳及野史所記咸知公之墓所在於延之館洞而未得可據之實以疑傳疑者已百有餘年矣粵在 純廟辛酉四從祖芝軒公在昶氏懼其終歸於泯沒倡率价博諸宗俱會于館洞發視其云云之塚宅欲求其可驗之跡而錘未及邃陳觚先露舉皆瞠愕相顧而有近居人金奉三者奔告曰此即吾七代傍祖母塚也是何事耶衆皆撫然遂未得實而止莫不慨恨是後遠近諸宗各自詞探未得真的端緒矣至丙寅夏膺洙先大父避憂於藥山僧舍有老衲能守座者即博川宗人仲孚之兄也逐日陪話極盡其誠者以其姓玄故也自言兒時祝髮於延之普賢寺先師嘗謂曰汝是貫延之玄則亦古玄將軍後裔也爲其後孫者不知先蹟可乎余當以老先師由來相傳之言明告汝蓋聞玄氏赫世大顯富貴甲於關西其家之前後恩澤及於此寺者甚多故寺之扁曰保玄者蓋爲玄氏祝願之意耶其後玄氏子孫之因仕南遷也世傳事蹟田土文記封置一櫃付之本寺且以先世墳墓守護節祀之意作爲一冊子託於寺僧故敬受寶藏相守傳誦 成化年間不幸本寺及所藏書籍盡入於回祿中重構後改扁以普賢者職由於世代悠邈恩澤已熄故也可勝歎哉書籍既不得傳而惟其傳誦之言至今不泯汝其識之將軍公少孤貧八九歲體甚碩大智勇絕倫劔閣即延之鎮山谷深樹密人不敢夜行公兒時嘗因事出外路由此山夜深昏黑鬼魅列炬前導曰玄將軍來矣可驗異兆先見矣公年十九猶未娶時羯虜犯境公倡義先登虜遂敗走麗毅宗嘉之特除延山府使且擇名宦家聘之後以中國請兵事拜爲大將軍又以平趙位寵之元勳屢遷至門下侍郎平章事封延山君延山之地皆其食采公之本第在延山府內而晚築別業於玉女峯下以爲郊居地所公捐館于府內本第及葬喪行至五里亭因府民俱會致奠停喪於今之墓所及奠畢欲行靈輶着地不動乃告以因葬此地之意然後輶乃可動遂葬於停柩之處其英靈蓋如此當初衛隧之物燦然備具經亂歲久墮廢已久而墳形陵夷便作平地境內人冒占其地者恐公之後昆封其墓而復其地碑碣誌銘盡投於野井而埋之又有壓葬於塚上者公有大功德於邦國生靈而萬世幽宅一任泯沒誠極慨歎云云先大父聞不勝感愴適仍族人道彬聞奉三方住城內使之招致細細盤詰且諭以厚助遷葬之意則果首實曰吾家世傳之言以爲偷埋玄將軍墓碑葬吾傍祖母於其上而子孫仍爲滅絕云又問埋碑處則不知其處云奉三之言與能釋之言自相脗合始乃十分無疑歸見芝軒公備述所聞曰能釋奉三之言無異於鄴曼母防墓之證今若遷金骸而廣掘得驗則伐石崇土之儀當如晦翁之於制置公墓也亟舉斯役乃是子孫之責矣未幾先大父以風患沉苦卒于翌年仲夏芝軒公又以老患在世未久嗚呼痛矣至庚午春族祖在德氏通諭諸宗聚會館洞招來奉三使之掘移渠塚而時值日暮仍宿於山下矣數三宗人並於夜夢有一大人儀容甚肅謂曰汝曹欲訪余幽宅則更當浚穿而得一舊墳墳內有三大蜂出即此便是云覺來相與說夢咸共驚異待朝而至役所山下人來者亦多遂更穿昨掘處幾至一丈果得舊墳墳內有腦骨及二齒腦大四圍齒長二寸諸宗見知自不覺感愴聚首拭眸之際果有三大蜂出自墳底飛入于宗人袖中及其改封也三蜂還入于墳嗚呼異哉數百年湮晦之兆今因先靈託夢一朝復顯是豈人力之所能及焉哉且聞古老傳言曰有一梁姓人築室於玉女峯下別業舊址而一夕明燈獨坐忽聞傳導之聲自遠而至驚起出視則有一員大將介馬戎服驕從甚衆呼梁喝責曰爾焉敢冒占我舊居乎速當欽避去梁即拔宅移去又修墓之日有五六老叟來言曰夢一大人威儀甚嚴大陳兵威于墓所云于古今傳言曰每於天陰雨濕之夜輒文部曲行陳喧闐之聲擺列於洞壑矣自改封後不復如是云噫我先祖精靈肝鬢蟄於故山棲息之域如水之在地冥冥之中啓牖後昆尋得幽宅於閔怯之後俾免文種之歎而得展歲祀之儀何等感幸是舉也倡義鳩財掘移金塚改封先兆者在德氏之力也掘案山金李兩塚豎墓表買墓田者族叔鐔氏宗丈宗甲氏三從叔錫利氏宗人宗億氏之效勞而鐔氏之力最多云茲記顛末以明尋墓

之的驗而且識僉宗之各效誠力焉

憲宗八年壬寅七月既望

二十代孫 膺洙 拜手 謹記

심묘기(尋墓記)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전략) 후손들이 각 방면으로 현장군의 묘소를 탐문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하고 공의 후손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비석과 지석을 모두 없애고 자신들의 선조 묘소로 몰래 장사를 지낸 자가 있었다 하는데, 찾기가 어려웠다. 후손들이 암장을 한 김모를 찾아내서 설득하기를 마침내 사실을 고백받았다. 그가 실토하기를 현장군의 묘비를 몰래 파묻은 뒤 다시 그 묘 위에 자신의 할머니 장사지냈는데, 그 후로 자신 집안의 대가 끊겼다고 한다. 그 할머니의 유골을 옮기기로 하고 묘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돌을 다듬어 쓴 것이며 흙을 다듬어 쓴 것이 꼭 예법대로 장사를 지낸 것이 분명하여, 주자 가례에 맞추어 예법대로 장사지낸 것이 분명하여 공의 묘소로 확증이 되었다.

무덤을 파 옮기려할 때 마침 해가 저서, 일꾼 여러 명이 산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일꾼 모두가 그날 밤 꿈에 외모가 엄숙하신 어른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내 묘소를 찾고자 한다면 또 다시 깊게 파서 구광(舊壙:그전에 관을 묻은 무덤 구덩이)을 찾으라. 그러면 그 구멍에서 세 마리의 큰 벌이 나올 것이니 이곳이 곧 내 무덤이다] 라고 현몽하였다. 꿈을 깨어 서로 꿈 이야기를 하니 여러명의 꿈이 다 똑같으므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파던 곳을 한 길 가량 더 파내니 과연 구광을 찾게 되었다. 광내에서 두개골과 2개의 치아가 있는데 두개골은 커서 등글고 치아는 길어서 2寸(=6센치 가량)이나 되었다. 모든 종친들은 감격하여 절로 머리가 숙여지며 눈물이 흘러서 닦고 있는 중 세 마리의 큰 벌이 구덩이 안에서 날라 나와 어느 종친의 옷소매 속으로 들어갔다가 급기야 무덤을 봉할 즈음에 세 마리의 벌이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니 이상하게도 몇백년 동안 무덤의 흔적이 없어져서 찾을 도리가 없었던 것을 선조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 하루 아침에 찾게 되었으니 이 어찌 사람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는가.

1810년(순조 1년)에 비로소 김씨 할머니 무덤을 파 옮기고 공의 묘소를 말끔히 단장했다. 이 때부터 자손들은 해마다 음력 9월 15일에 한 번씩 묘사를 지내게 되었다. (고려사 관서여지승람(關西輿地勝覽)과 본부 읍지에도 이 내용이 있다.)

또한 옛적 노인들의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양씨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옥녀봉 밑에 있는 玄장군의 별장 옛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밤 등불을 환히 밝히고 홀로 앉아있을 때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므로 양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본즉 한 장군이 말을 타고 뒤에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호령하는 말이 [양가, 너는 어찌해서 감히 함부로 나의 옛집을 차지하고 있느냐 ! 지체없이 속히 물러가거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양가는 깜짝 놀라 집을 떠나 버렸다

그리고 묘를 지키고 있을 때, 5, 6명 노인들이 찾아와서 꿈에 외모가 위대하고 엄숙한 어른 한 분이 와서 묘소 곁에 많은 군사를 벌려 세우고 그 위용을 떨쳤다고 하였으며 또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하여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밤이면 군사

가 행렬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동네까지 들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묘소를 새로 단장한 뒤로는 일체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심묘기(尋墓記)에 전하고 있다.

1-2. 관향(貫鄉) 연주(延州)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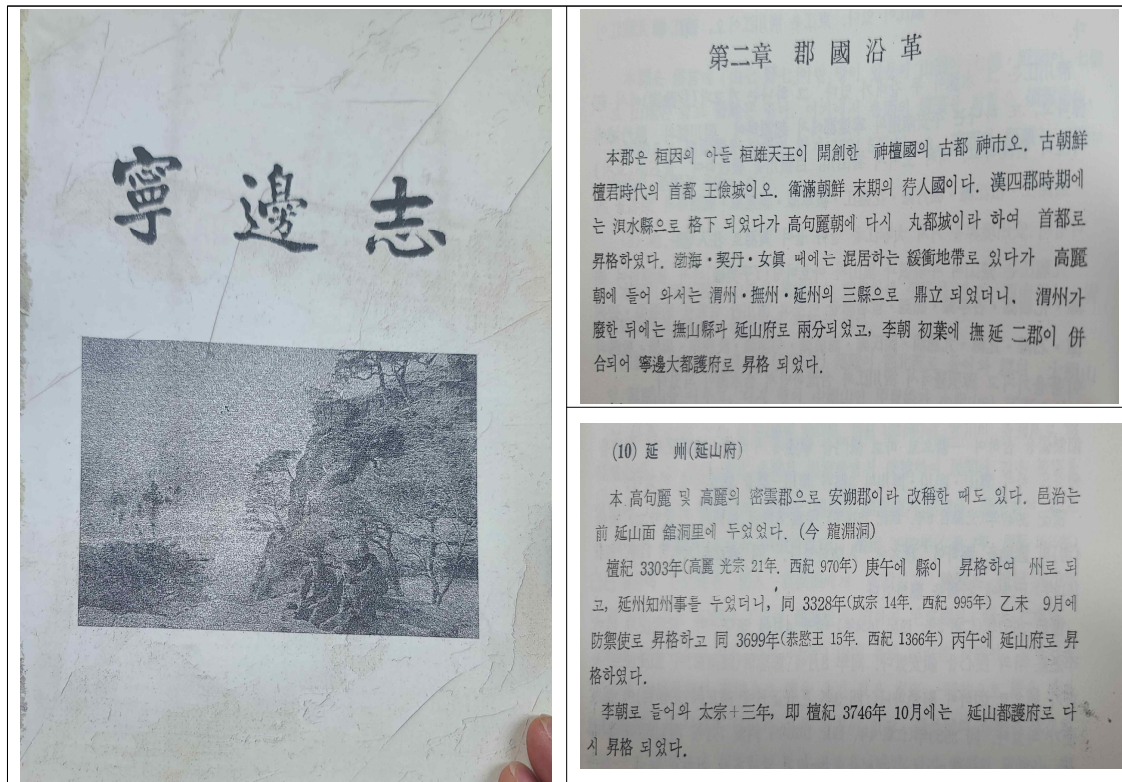
선조(先祖)들께서 일찍이 중국(中國)으로부터 玄氏姓을 갖고 이 땅에 정착하여 玄氏姓을 그대로 써온 것으로 추정되며, 영변지에 의하면 고려조의 고성(古性)으로 의주현씨(義主玄氏)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본관(本貫)을 연주(延州)로 한 연유는 현담윤 장군의 본 고향이 연주(延州)일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연산군에 봉해진(봉군지명 : 封君地名) 것을 계기로 현씨의 본관(本貫)을 연주로 정했다.

연주는 평안북도 영변군(寧邊郡)의 옛 지명이다. 영변은 『택리지』에 “안주 동북쪽은 영변부다. 영변부는 산세를 따라서 성을 쌓았는데 가파르고 험하여 철옹성 鐵瓮城(일명 부르며, 평안도 전체에서 외적을 방어할 만한 곳은 오직 여기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71년에 영변군민회(寧邊郡民會)가 간행한 영변지(寧邊志)에 의하면,

영변(寧邊)은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천왕(桓雄天王)이 개국(開創)한 신단국(神檀國)의 옛수도(古都) 신시(神市)며, 고조선(古朝鮮) 단군시대(檀君時代)의 수도(首都) 왕검성(王儉城)이며, 위만조선(衛滿朝鮮) 말기(末期)의 행인국(荇人國)이다라고 되어 있다. 고구려조(高句麗朝)에 다시 환도성(丸都城)이라고 하여 수도(首都)로 승격(昇格)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영변은 역사가 깊은 고장이다.

영변은 고구려(高句麗)와 고려(高麗)조때 밀운군(密雲郡) 또는 안삭군(安朔郡)이라 개칭한 때도 있었다. 관아(官衙)는 전 연산면(延山面) 관동리(館洞里)에 있었다. 서기 970년(고려 광종 21년) 연주(延州)로 고쳐 지주



사(知州事)를 두었다. 995년(고려 성종 14년) 방어사(防禦使)를 두었다가, 1366년(공민왕 15년)에 연산부(延山府)로 승격되었고, 1413년(조선 태종 13년)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1419년(조선 세종11) 무산(撫山)을 통합하여 영변 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1895년(조선 고종 32) 영변군으개편되어 1896년 평안북도에 소속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에 “약산(藥山)은 영변부의 서쪽 8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옛 기록에서는 “약산의 험준함은 동방에서 으뜸간다. 겹겹이 싸인 멧부리가 서로 사면을 에워싸 그 모양이 쇠 독과 같다” 라고 하였다.

영변부의 기록에도 “약산은 하늘이 만들어낸 성이다. 또한 의주, 삭주, 강계 등 여러 고을 가운데 이곳이 군사를 모으기에 알맞은 땅이다” 라고 실려 있으며, 『여지도서』 「풍속」조에는 “품성이 순박하고 꾸밈이 적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라고 실려 있다.



약산동대

영변군에 자리한 향적산, 오봉산, 북장대, 약산 등은 해발 400~500미터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약산(藥山)은 봄철의 진달래로 이름난 관서 8경의 한 곳이다. 약산을 약산동대(藥山東臺)라고도 부르는 것은 옛날에 영변이 무주, 위주, 연주로 나뉘어 있을 때 무주에서 보면 약산이 동쪽에 우뚝 솟은 대 같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변 하면 떠오르는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시가 있기도 하다.

관향 연주성 성벽은 약산동대(藥山東臺)에 걸쳐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적을 방어하는 전쟁에서 설명되었듯이 철옹성이고,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연주현씨의 본향이다. 그 연주를 본관의 고향으로 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연주성 옛지도



영변 약산동대에 소재한 영변읍성(철웅성) 본성의 남문과 문루 전경, 문루 아래층에 만노문(萬弩門), 위층에 고연주성문(古延州城門의)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1-3. 시조 현담윤 장군 세 아들의 활약

현덕수(玄德秀, ? ~ 1215년)

1174년(고려 명종 4년) 시조 현담윤 장군의 장남으로서 부친과 함께 조위총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벼슬이 병부상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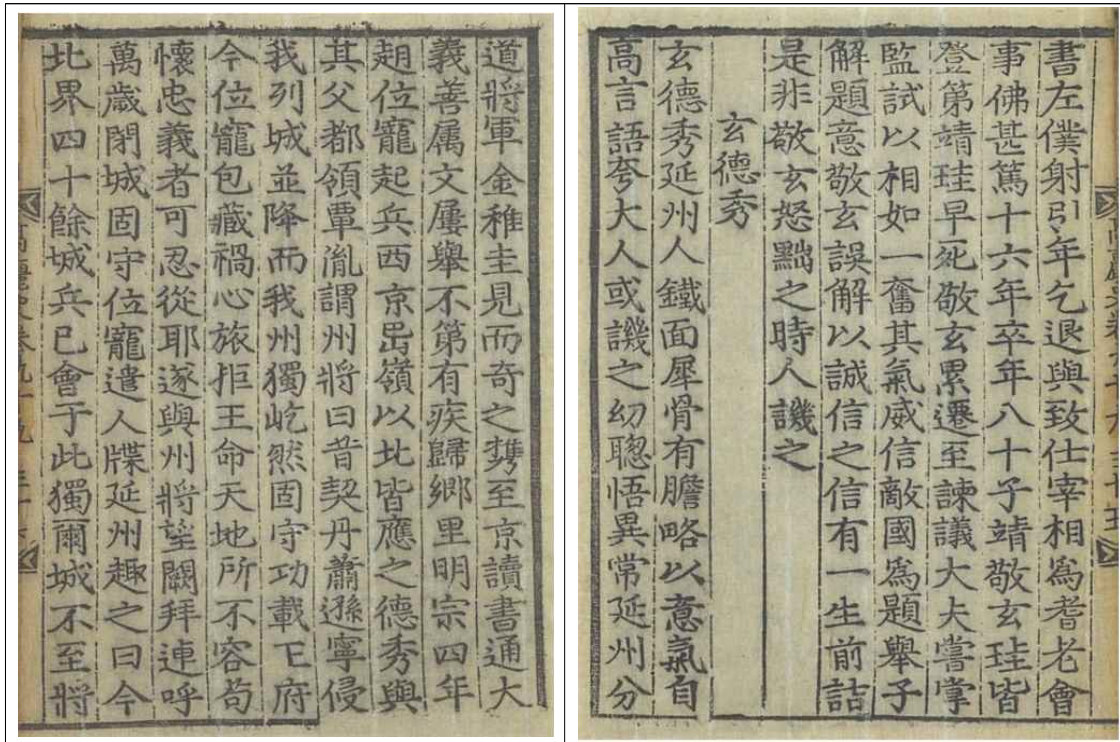
고려 명종 4년에 서경(西京)에서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일으키자 절령(岳嶺: 慈悲嶺) 이북 40여 성(城)이 다 이에 응했으나 연주도령(延州都領)인 아버지와 함께 연주성(延州城)을 굳게 지켰다. 이 때 주민들의 추대를 받아 권행병마대사(權行兵馬臺事)가 되었으며, 조위총이 현덕수를 회유하기 위해 보낸 사절을 잡아죽였다.

그 뒤 다시 주민들의 추대로 권감창사사(權監倉使事)가 되었는데, 이때 서경의 군대 1만여 명이 연주성을 포위하자 이를 쳐서 궤멸시켰다. 다시 개경에 진격했다가 패퇴한 서경의 군대가 여러 겹으로 포위해왔으나 이를 쳐서 패퇴시키고 많은 포로와 무기를 노획하였다. 다시 서경의 군대가 연주성을 공격하자 또 이를 쳐서 물리쳤다. 그 공으로 현덕수는 내시지후(內侍祗候)가 되었다. 이어 안남도호부부사(安南都護府副使)가 되어 청렴하고 밝게 정사를 하여 관리와 백성들의 공경을 받았다. 특히 음사(淫祠: 귀신에게 제사 지냄)를 싫어하여 이를 엄히 금하니 무당이 경계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내직(內職)으로 들어와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었다. 병부낭중, 사재소경(司宰少卿), 전중소감(殿中少監)을 거쳐 벼슬이 병부상서(지금의 국방부 장관)에 이르렀다.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난 후, 퇴직한 원로대신들과 함께 기로회(耆老會)를 만들어 한가로이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지상의 신선이라 부르고 모습을 그려 바위에 새겨서 세상에 전하였다.

고려사(高麗史) 99권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영인본 원문(原文)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원문(原文)

玄德秀 延州人 鐵面犀骨 有膽略 以意氣自高 言語誇大 人或譏之 幼聰悟 異常 延州分道將軍 金稚圭 見而奇之 携至京 讀書通大義 善屬文 屢舉不第 有疾 歸鄉里 明宗四年 趙位寵起兵 西京 岳嶺 以北 皆應之 德秀與其父都領 覃胤 謂州將曰 昔契丹 蕭遜寧 侵我 列城並降而 我州獨屹然 固守 功載王府 今位寵包藏禍心 旅拒王命 天地所不容 苟懷忠義者 可忍從耶 遂與州將 望闕 拜 連呼萬歲 閉城固守 位寵遣人 牒 延州趣之 曰 今北界四十餘城兵 已會于此 獨爾城不至 將舉銳兵 問罪 慎勿聽二 三人語 宜秣馬興師 速赴西都 城中推德秀權行 兵馬臺事 德秀遣州將 彦通等三十餘 人 擒賞牒者 殺之 於是 州人以德秀弟宣旨別監 龍虎軍將軍 利厚 權行兵馬使事 德秀 權監倉使事 諸城兵 復攻延州 德秀又擊敗之 王拜覃胤爲將軍 安北戶長 魯文 腴爲閤門祇候 使居其鄉 德秀爲內侍祇候 安北都領 宋子清 文臣老 姜遇文 職賞有 差 並使居京 以安北初附位寵而後背之也 德秀上書 請納祇候告身 赴舉 不許 尋出 爲安南都護副使 爲政廉明 吏民敬畏 尤惡淫祀 禁令甚嚴 巫覡 不得入境 有吏執女 巫與其夫至 德秀訊之 顧謂同僚曰 此巫非女 乃男子也 同僚笑曰 非女安有夫乎 德 秀令裸視 果男子也 先是 巫出入士族家 潛亂 婦女 其被污者亦羞之 不以語人故 所 至恣淫穢 至是 一方服其神明 入爲都官郎中 時散員同正盧克清 家貧 將賣家未售 因事出外 其妻受德秀 白金十二斤賣之 克清還 謂德秀曰 予初以九斤 買此家 居數

年 無所增飾而得十二斤 豈可乎 請還至 德秀曰 爾能守義而獨予未也 遂不受 克清曰 予平生不爲非義 豈可賤買貴賣 以贖 于貨 予若不從 當悉還其直 復吾家也 德秀不得已之曰 予豈不逮克清者乎 遂施佛寺 聞者莫不嘆息 曰 今世得見如此人耶 後拜吏部郎中 諫官奏 不宜授邊城人 乃改授兵部郎中 轉司宰少卿 德秀妻養母死 妄告妻母服 事覺劾罷 神宗朝 起拜殿中監 累遷兵部尚書致仕 高宗二年卒

《고려사(高麗史)》 <현덕수열전(玄德秀列傳)> 우리말 해석

현덕수(玄德秀)는 연주(延州) 사람인데, 철면(鐵面)으로 강직하게 사사로움을 몰랐고, 서골(犀骨)로 귀한 이의 관상을 지녀 담력과 지력이 있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스스로 뽐내며 말을 과장되게 하니 사람들이 간혹 비웃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다른 기상이 있었는데, 연주분도장군(延州分道將軍) 김치규(金稚圭)가 그를 보고서는 기이한 인물로 여겨 개경으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대의 파악을 잘했고 글도 잘 지었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고 병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서기 1174년(고려 명종(明宗) 4년)에 조위총(趙位寵)이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절령(岬嶺) 이북 지방이 모두 그의 편으로 넘어가 호응했다. 하지만 현덕수(玄德秀)가 그의 아버지인 도령(都領) 현담운(玄覃胤)과 더불어 자기 고을 군관들에게 말하기를, “옛날 거란(契丹)의 장수 소손녕(蕭遜寧)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적에 각 고을이 모두 항복하였으나 우리 고을만은 엄연히 군게 지켜서 그 공적이 왕실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조위총이 악심을 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그의 죄는 천지(天地) 간에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충의(忠義)를 품은 사람이라면 어찌 차마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드디어 장수들과 함께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고 만세(萬歲)를 연거푸 부르고는 성문을 닫고 군게 지켰다. 위총이 사람을 시켜 연주에 공문(牒)을 보내고 재촉하며 말하기를, “이제 북계(北界) 40여 성의 군사 이미 이곳에 모였는데 유독 너희 성만 오지 않았으니... 앞으로 정예(精銳) 부대를 파견하여 그 죄를 물을 터이다. 이에 몇몇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군비를 갖추고 병력을 동원하여 빨리 서경으로 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성안에서는 현덕수를 권행(權行) 병마대사(兵馬臺事)로 추대하였다. 현덕수가 군관 언통(彦通) 등 30여 명을 보내어 공문을 가지고 온 자를 사로잡아 죽였다.(중략)

병마사(兵馬使) 차중규(車仲圭)가 연주로 오는 길에 운반역(雲畔驛)에 이르러 운주(雲州)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으므로, 분대감찰어사(分臺監察御史) 임탁재(林擢材)와 녹사(錄事) 이당취(李唐就) 등이 (병마사의) 인장(印章)을 숨긴 채 연주로 찾아와서 말하기를, “병마사가 이미 죽었으니 우리들은 갈 곳이 없다. 우리들을 구원해달라!”라고 하였다. 이러자 고을 사람들은 현덕수의 아우 선지별감 용호군장군(宣旨別監 龍虎軍將軍) 현이후(玄利厚)에게 병마사(兵馬使) 일을 임시 대행케 하고, 현덕수에게 감창사(監倉使) 일을 대행하라 하였으며, (중략) 여러 성의 군대가 다시 연주를 공격하였으나 현덕수가 이번에도 또 적군을 격파하여 패배시켰다.

왕이 현담운(玄覃胤)을 장군(將軍)으로, 안북호장(安北戶長) 노문유(魯文腴)를 합문지후(閤門祗候)로 각각 임명하고선 고향에 살게 하였다. 현덕수(玄德秀)는 내시지후(內侍祗候)로

임명하고, 안북도령(安北都領) 송자청(宋子淸) · 문신로(文臣老) · 강우문(姜遇文) 등에게는 관직과 상을 각기 차등 있게 주어서 모두 서울[開京]에 살게 하였으니, 이는 안북이 처음엔 조위총 편에 붙었다가 나중에 귀순하였기 때문이다. 현덕수가 글을 올려, 지후고신(祗候告身)을 반납하고, 과거에 응시하겠다고 청원했으나 (···) 허락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현덕수(玄德秀)는 안남도호부사(安南都護副使)로 나갔는데, 청렴하고 명철하게 다스렸으므로 아전들과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더욱이 그는 평소 음사(淫祀)를 몹시 싫어하고 금령(禁令)을 매우 엄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무당들이 함부로 고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루는 아전이 어떤 여자 무당과 그의 남편을 붙잡아왔는데, 현덕수가 무당을 신문(訊問)하더니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이 무당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다.”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자가 아니라면 어찌 남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현덕수가 무당의 옷을 벗기라 하고 보니 과연 남자였다. 이에 앞서 무당들이 사족(士族)의 집에 드나들면서 가만히 부녀(婦女)들을 희롱하였으나 정조를 더럽힌 자들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까닭에 무당들은 가는 곳마다 음란한 추행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온 고을 사람들이 현덕수의 신명(神明)에 탄복하였다.

내직(內職)으로 들어가서 도관낭중(都官郎中)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때 산원동정(散員同正) 노극청(盧克淸)이 빈곤하여 집을 팔려 하였으나 팔리지 않던 차에 일이 있어서 그가 지방으로 간 사이 그의 처가 현덕수에게 은(白金) 12근(斤)을 받고 그 집을 팔았다. 그런데 노극청이 집에 돌아와 (이런 사실을 알고선) 현덕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초에 9근으로 이 집을 사서 여러 해 살았다. 그러나 증축이나 보수한 일을 하지도 않고서 12근을 받았다는 게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전보다 더한 나머지의 돈을 반환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말하기를, “그대는 능히 의로움을 지킬 줄 아는데, 나라고 못 지키겠는가?”라고 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이에 노극청이 말하기를, “내 평생에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는데, 어찌 혈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돈벌이를 하겠습니까? 그대가 만약 내 말을 따라 주지 않으신다면 당장 집값을 모두 돌려 드릴 테니 집을 도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현덕수가 어쩔 수 없이 은 3근을 되돌려받고는 말하기를, “내가 어찌 노극청만 못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며, 드디어 그 돈을 절에 희사하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을 얻어볼 수 있구나!” 라고 하였다.

뒤에 이부낭중(吏部郎中)으로 임명되었는데, 간관(諫官)이 고하기를, “변방 출신의 사람에게 그런 관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병부낭중(兵部郎中)으로 고쳐 임명되었다가 사재소경(司宰小卿)으로 전임(轉任)시켰다. 그러나 현덕수 처(妻)의 양모(養母)가 죽은 것을 장모라고 거짓 보고하고 복을 입은 일이(···) 탄로 나서 탄핵을 당하고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신종(神宗) 때에 전중감(殿中監)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여러 차례 승직 되어 병부상서(兵部尙書)에까지 올랐다가 나이가 들어 치사(致仕):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였다. 고종(高宗) 2년(1215)에 죽었다.

<상서공사적(尙書公事蹟)>에 의하면,

안남도호부사 시절 성내에 제사(淫祀)를 엄금하는 명령이 내렸다. 이때 이 일을 취급하는 관리가 무녀와 그 부군 된다는 남자를 잡아 공의 앞에 온 즉 공은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무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분명하다”고 하니 동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남자가 어찌 남편이 있겠습니까?” 하니 공께서는 그의 옷을 벗겨 보라는 명령을 내렸다. 옷을 벗겨 보니 과연 남자였다. 이 무녀는 전부터 문벌이 높은 집에 드나들면서 부녀자들에게 음란한 짓을 하여 왔으나 몸을 더럽힌 무녀는 부끄러워서 감히 남에게 말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러운 짓을 하여왔던 것이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공이 도관랑중(都官郎中, 정5품)으로 계셨을 때 산원동정으로 있는 노극청(盧克淸)이 가빈하여 주택을 공에게 팔기로 언약만 하고 집값을 받기 전에 출타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의 처가 공으로부터 주택값으로 백금 12근을 받아갔다. 극청이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당초에 내가 샀을 때 9근을 주고 이 집을 매입하여 수년 동안 살았어도 더 수리한 것도 없이 12근을 받았으니 어찌 옳은 일이겠소” 하면서 웃돈을 반환하려 하니 공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의리를 잘 지키고 있으나 나는 홀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극청의 말이 “나는 평생을 두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 천한 집을 팔면서 귀한 값을 받아 장사꾼처럼 더러운 짓은 못하겠다. 만일에 공께서 받지 않으려면 내 집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공은 할 수 없이 돈을 받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극청이와 같은 사람이 못되었던가”하고 받은 돈을 절에 시주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이처럼 의리가 두터운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 후에 이부랑중(吏部郎中, 5품 벼슬)으로 제수 되었다가 간관이 변방인 이라 옳지 못하다고 왕에게 상소하여 병부낭중으로 전임되었다가 또 다시 사재소경(司宰少卿)의 자리로 옮겨졌다. 고려 神宗2년(1198년)에 전중감(殿中監, 종3품)을 배수한 다음 누차에 걸쳐 승진하여 병부상서(兵

部尙書,국방부 장관격)에 이르렀다. 팔거군에 봉해지셨다가 다시 성산 부원군으로 이봉 되셨다.

5대의 임금을 섬겨 높은 벼슬을 지내시다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향리로 물러난 후 평장사 최당 등 같은 연배의 퇴직 관리 9명과 함께 기로회(耆老會)를 만들어 옛 기성의 법제를 강구하시니 예양의 속을 숭상케 하시며 공맹(孔孟)의 경전을 구득하사 사림을 교도하여 명륜지학을 흥왕케 하시고 또 도형각석을 하면서 한가로이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지상의 신선이라 부르고 모습을 그려 바위에 새겨서 세상에 전하였다고 한다.

기로회(耆老會) : 조선시대 나이가 많은 문신(文臣)을 예우하기 위해 만든 관청인 '기로소(耆老所)' 설치의 계기가 되는 모임이다. 1394년 태조는 60세를 넘자 기사(耆社)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임금 스스로도 이름을 올려 전토(田土)·염전(鹽田)·어전(漁箭)·노비 등을 사여(賜與)함과 아울러 군신(君臣)이 함께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겼다. 태종 즉위 초에 이를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쳤다.
<https://naver.me/FH7iNksR>

1215년(高宗 2년)을해 5월 임오일에 80여 세로 서거하셨다.

묘소가 영변부(寧邊府) 남송면(南松面) 봉지리(鳳至里) 송충곡(崇忠谷) 호학동(好學洞) 자좌(子坐)의 언덕에 있었으나 일찍이 난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

서기1719년(숙종(肅宗) 45년, 기해(己亥))에 남악사(南嶽祠)를 짓고 송파윤공(松坡尹公)과 같이 배향(配享)한 후 금원령(禁院令)에 따라 철폐(撤廢)되었다. 그 풍공위열이 려사제강과 관서여지승람에 소재되어 역력히 참고하게 되었고 그 가언 선행이 연주 읍지와 남악사우 축문에 상기(詳記)되어 세인의 이목을 혁연케 하니 시이로 명성이 해동에 양일(洋溢=넘친다) 하였다. 이 사적은 남악사우 축문 및 기로회 좌목 소서에도 있다.

현이후(玄利厚)

시조 현담운 장군의 차남으로 부친과 함께 조위총의 난을 평정했으며, 벼슬이 용호장군에 이르렀고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졌다.

<광성군사적(廣城君事蹟)>에 의하면,

공(公)의 휘자(諱字)는 이후(利厚)인데 시랑공(侍郎公)의 둘째 아들이다. 서기 1174년(고려명종高麗明宗 4年) 선지별감(宣旨別監)(임금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 용호장군(龍虎將軍)(현재령급(領級)으로서 형인 상서공(尙書公)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킨 조위총(趙位寵)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우시어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 지방장관)가 되고 광성군(廣城君)에 봉(封)해졌다.

사적(事蹟)은 고려사(高麗史) 및 상서공열전중(尙書公列傳中)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경상도백선생안(慶尙道伯先生案)에 공의 휘자(諱字)만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에 이르도록 더 이상은 분명치 않다.

利厚의 아들 휘는 원도(元燾)요 관은 평장사(판서)이다. 원도(元燾)의 아들 휘 문홍(文弘)의 관은 군기사감(軍器寺監)이다.

현덕유(玄德裕)

시조 현담운 장군의 삼남으로 1186년(고려 명종 16년, 병오丙午)에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서경유수(西京留守, 지방장관)를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종2품 벼슬), 참지정사(參知政事, 중서문하성의 종이품 벼슬), 대사공(大司空, 공조판서)의 벼슬을 했으며, 회원군(檜原君)에 봉(封)해졌다. 시호(諡號)는 정헌(正獻)이다.

<회원군사적(檜原君事蹟)>에 의하면,

공의 휘(諱)는 덕유(德裕)이니 시랑공(侍郎公)의 셋째 아들이다. 서기 1186년(고려명종 高麗明宗 16年) 병오(丙午)에 문과(文科)에 급제했다. 그 성품이 고결하여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권신(權臣) 최충헌(崔忠獻)을 비방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외지로 나가 있더니 이부(吏部)와 예부시랑(禮部侍郎, 吏부의 정4품 벼슬), 서경유수(西京留守, 지방장관)를 거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종2품), 참지정사(參知政事,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대사공(大司空, 공조판서)으로 회원군(檜原君)에 봉(封)해졌으며 시호(諡號)는 정헌(正獻)이다.

덕유의 아들 휘는 승(昇)이요 관은 이부전서(吏部典書, 정3품)이며 승의 장자 휘는 경(璟)이요 관은 지후(祗侯)며 차자 휘는 장(璋)이며 관은 추밀원사(樞密院使, 종2품)이다.

현씨 원찰 보현사(保玄寺->普賢寺)

玄씨는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거족으로서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서 관서지방 제일의 가문이었다. 관서지방의 명찰 보현사(普賢寺)는 현씨 집안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사찰 이름을 보현사(保玄寺:현씨가문의 보책(譜冊) 기록을 보관한 사찰로 현씨 가문이 발전될 것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절)라 하였다. 이는玄씨가문이 더욱 발전될 것을 축원하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후玄씨의 자손들이 벼슬길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자,玄씨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사적과 토지문서를 께짝에 봉해서 이 절에 맡겨 두었으므로 그것을 보관하여 내려오다가 명나라 성화년간(成化年間)(註)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이 절에 있던 모든 서적이 소실되어 이 절은 빈 절터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후 빈터에다 사찰을 중건하고 그 이름을 보현사(普賢寺)라고 개칭하여 내려 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적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세대가 유원(悠遠, 아득히 멀다)하여 은택이 이미 오래된 연유로 인하여 서적도 없어져서 오직 말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註) 성화년간(成化年間) : 성화(成化)는 중국 명(明)나라 헌종(憲宗) 때 사용한 연호(年號)로서 그 기간은 1464년에서 1487년 사이로 28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불행히도 성화(成化)연간(1464~1487)에 발생한 화재로 말미암아 본 사찰의 건물은 물론 소장한 서적 모두가 불에 타버렸다.